

1004섬, 그 기적의 길 위에 서서

자치CEO

박우량
신안군수

1004개의 현사로움이 모인 환상의 섬 신안. 휴가철에 떠오르는 그 '섬과 바다'는 더위 속에서도 청량함을 주고 환상과 낭만이 자아내는 곳이지만, 실제 섬에서의 삶은 애환과 고달픔을 자아내는 곳이기도 했다. 창군(創郡) 이후, 계속 감소하는 신안군의 인구와 열악한 재정 상황은 이를 방증한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우리 신안은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다. 2022년부터 인구 감소세가 완화되더니 급기야 2023년에는 오히려 인구가 증가하는 반전 드라마를 써 내려가고 있다. 신안을 찾는 방문자 수도 5년 사이에 14.7%가 증가하며, 같은 기간 전남도 방문자 수 증가폭에 2배 가까운 성장세 보이고 있다. 놀라운 점은 이런 현상이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이다.

무엇이 신안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

'남이 가지 않는 길', 우리가 내놓은 대답이고, 그동안 신안의 변화를 설명하는 핵심 문장이다. 우리 군은 남들이 쉬어도 전하지 않는 '비평범성(Unique)'에서 민선 8기 군정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것(Following)만으로는, 만년 꼴찌를 벗어나기 어렵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것, 선도자(First Mover)의 길은 선택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었다.

'남이 가지 않는 길', 그 첫 신호탄은

'햇빛연금'이었다. 2018년 우리 군은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 공유제'를 제도화했고, 2021년 주민들에게 처음으로 이익배당금(일명 '햇빛연금')을 지급했다. 특히 햇빛연금 제도는 지자체의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개발 이익을 균점하는 상생형 정책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두 번째 길로, 누구라도 찾아오고 싶은 섬을 만들기 위한 장기 계획을 실현해가고 있다. 우리 군만의 이야기가 담긴 독특한 관광 자원을 만들어가기 위해 '색채(컬러) 마케팅', '1섬 1정원', '1섬(島) 1뮤지엄' 프로젝트를 향한 대장정이 시작됐다.

연간 40만 명이 찾는 관광명소가 된 퍼플섬에서의 첫 실험을 바탕으로, 컬러와 꽃, 나무를 섬의 상징으로 만들고 있다. 처음엔 떨떠름해 하던 주민들도 이젠 컬러로 자기 섬을 자신있게 드러낼 만큼 그 성과가 괄목할 만하다.

수선화의 섬 선도와 현복순 여사(일명 수선화 할머니)의 사연은, 단순히 나무와 꽃을 식재하는 것을 넘어 섬에서 이야기(Story)를 찾고 인문학이 생동하는 공간을 만들어가는 우리 군의 노정이 깃든 하나의 서사(Narrative) 작품이다.

여기에 더해 야나기 유키노리(Yanagi Yukinori), 마리오 보타(Mario Botta), 박은선, 안토니 곰리(Antony Gormely), 올라퍼 엘리아슨(Olafur Eliasson) 등 유수의 예술가들이 만들어가는 뮤지엄은 섬의 색을 한층 다채롭게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여담이지만, 저 유명한 작가들을 우리 군으로 모시기 위해 그간 수십 번 서신을 교환하고 설득하던 과정들을 돌아보며, 짧게나

마 함께 고생했던 공직자와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해본다.

또한, 우리 지역의 오랜 숙원(宿願)인 교통 인프라 문제 해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물을 그리던 '흑산도 아가씨(1966, 이미지)'와 '퍼플교 감매금 할머니'의 이야기로 대표되는 섬 사람들의 애환을 풀어내기 위해 연륙·연도교, 흑산공항 건설 등 인프라 확충에 힘쓰고 있다.

물론 이런 성과 이면에는 아직도 산적한 과제들이 남아있지만, 우리 군정을 지지하는 군 의회와 군민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공직사회가 뒷받침된다면 어려운 과제들을 차근차근 해결하고, 중국에는 '섬에 사는 것이 자랑스러운' 신안의 청사진을 실현할 것이라 확신한다.

'남이 가지 않는 길', 말은 쉽지만 '첫 걸음'은 언제나 위험(Risk)을 내재하기에 실제로 이행하기는 쉽지 않은 걸음이며, 그렇기에 혁신(Innovation)은 늘 걸림돌에 방해받기 십상이다. 그러나 실패의 두려움을 안고서도 기어이 혁신의 길을 걸어야 한다. 기왕 걸어야 할 길이라면, 더 먼저, 더 용감하게 첫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우리를 포함한 많은 인구감소지역들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선도자(First Mover)의 길을 지나 개척자(Frontier)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선택의 기로에 놓인 많은 리더들에게 이 글이 작게나마 위로와 용기를 주고, 영감을 북돋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끝으로 이 어려운 길이 꽃길은 아닐지언정, 발걸음은 가벼울 수 있도록 중앙정부도 생각을 전환하여 폭넓은 자치권을 보장해주시기를 당부하며 맺음말을 갈음한다.

기고

양승규 광주시 상임행정융무부즈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당장 눈앞에 이러한 질문지가 주어진다면 어떨까. 질문을 듣고 난 뒤 어떤 이는 머릿속이 하얗게 말문이 턱 막힐 테고 누군가는 번뜩이는 무언가가 뇌리에 스치기도 할 것이다. 대부분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다시 한번 물음을 곱씹어 보며 나도 모르게 지금껏 어떻게 살았는지, 잘 살아왔는지 곰곰이 되돌아보게 된다.

삶에 대한 너무나도 적나라하면서 근본적인 이 물음은 러시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대문호 톨스토이가 1885년 저술한 단편소설의 제목이다. 누구나 한번쯤 이 틈을 들어봤을 법한 작가의 작품이기도 하고, 단박에 시선을 사로잡는 제목만으로도 책을 읽지 않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소설은 작은 마을에서 구두방을 운영하는 세몬이 추운 겨울 교회 앞에 벌거벗은 남자 미하일을 집으로 데려오면서 시작된다. 외투 하나 장만하기 힘든 가난한 생활이지만 어려운 이웃을 돕는 마음 따뜻한 세몬 부부 밑에서 미하일은 구두 만드는 법을 배운다. 사실 미하일은 하늘에서 내려온 날개 잃은 천사였다. 그가 여러 사건을 겪으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포함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은 뒤 하늘로 올라가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난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질문을 좀 더 명확하게, 혹은 좀 더 답하기 쉽게 바꿔보자. '사람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개개인마다 그리고 주어진 상황과 시기에 따라라도 답은 달라질 것이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무수한 답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그 종착역에는 시민이 있을 것이다. 우리 광주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삶을 좀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우리는 시민의 삶을 구석구석 살피기 위해 행정융무부즈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2년 1월 공식 출범한 광주광역시 행정융무부즈만위원회는 총 7명의 위원이 고충민원 해결과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에 분주히 뛰고 있다. 과거 행

정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시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불편사항을 해결할 방안을 찾아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행정의 신뢰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 밖에 요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악성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순기능도 있다. 자칫 악성민원으로 변화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하여 행정융무부즈만위원회가 제3자의 공정한 시각에서 문제를 들여다봄으로써 민원 처리결과에 대한 민원인의 신뢰성과 수용성을 높여 또 다른 시민인 공무원이 합리적이고 소신 있게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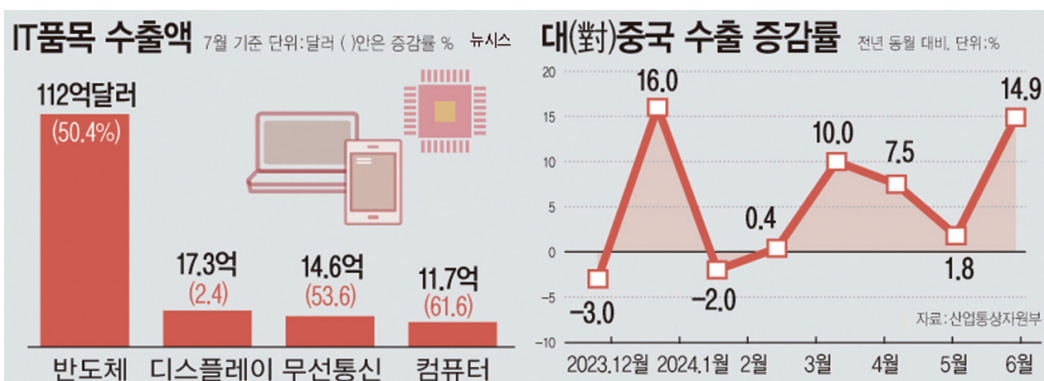
지난 한 해 동안 열일곱 차례 회의를 개최하였고 582건의 고충사항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살펴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었다. 더 나아가, 시민생활과 밀접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데에도 힘써, 공중화장실 범죄예방 제도개선과 정수예고장 통지방식 개선 등을 시정에 제안하고 반영하여 좀 더 나은 광주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되었다. 올해는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 채용공고와 다자녀 지원 제도개선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톨스토이의 답은 바로 '사랑'이었다. 우리시행정융무부즈만위원회에서 하는 일련의 일들이 시민을 향한 사랑의 다른 표현 방식이 아닐까 생각한다.

앞으로도 행정융무부즈만위원회는 사람에 대한 애정 어린 시선으로 누구도 소외되고 고통받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고 따뜻하게 살필 것이다. 동시에 시민에게 불편하고 부당한 제도와 관행에 대해서는 차갑고 매서운 눈으로 바라볼 것이다. 또한 다양한 목소리를 시정에 담아내기 위해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시민과 발맞춰 걷는 위원회가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어느새 완연한 여름이다. 행정융무부즈만위원회가 광주시민에게 무더위 속 이마에 땀을 식혀주는 시원한 바람이 되고 기대어 쉬어갈 그늘이 되어, 사람이 살아가는 맛이 나는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에 조그마한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그래픽으로 보는 세상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북교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